

### 공동체 소식

#### 연중시기

-연중시기는 1년 주기의 교회 달력(전례력)에서 대림, 성탄, 사순, 부활시기를 제외한 나머지 시기입니다. 전례를 따르는 모든 이가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기간입니다. 연중 시기는 모든 그리스도교 덕행들에 박차를 가하는 때입니다. 성령께서 이처럼 침묵 속에 서서히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각 주일과 하루하루의 삶을 충만히 살도록 도와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일상 삶 전체를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바치는 영원한 봉헌'이 되게 해 주십니다. 연중 시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교 활동과 가르침 등 공생활에 관한 복음을 읽으며, 사제는 삶의 기쁨과 희망을 상징하는 녹색 제의를 입습니다.

-2019년 9월 30일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연중 제3주일을 '하느님의 말씀 주일'로 선언하였습니다.

#### CLA 2차헌금

-26일(일): 라틴 아메리카 교회를 위한 모금 (Church in Latin America)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세속적인 문화의 확대, 험악한 지형과 사제/선교사의 부족으로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차헌금은 교리교육, 혼인과 가정 사목 그리고 사제 양성을 지원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2차헌금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여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여러분의 신앙을 나눕시다. (미국 천주교 주교회의)

#### 2020 신앙여정 점검표

-2020 신앙여정 점검표를 드립니다. 개인별로 1년동안 '주일미사, 평일미사, 성사생활, 기도생활'을 점검하고 돌아보실 수 있습니다. 스스로 체크하여 보다 개선된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 신심미사

-2월 1일(토) 오전 10시

-30분전 묵주기도 합니다.

#### 주님 봉헌 축일 초봉헌

-2월 2일(일) 오전 11시

-미사 시작 전 초 축복식이 있습니다. 일년간 제대에서 사용되는 초를 봉헌해 주시고, 각 가정에서 기도하실 때 사용할 초도 구입하시면 됩니다.

-초봉헌 문의: 전례부

#### 전례부회의

-2월 2일(일) 오후 1시 나자렛관

-독서자 모집합니다. 전례부에 문의 바랍니다.

#### 봉사활동 참여자 모집

매월 둘째 토요일에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일시: 2월 8일(토) 오전 10시~12시

-장소: 135th TurnStyles Thrift Store

-1월 31일까지 봉사부장에게 신청

#### 바오로딸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학생모집

-과정: 입문/중급/성바로 신학영성 중 선택

-방법: 우편과 이러닝(동영상강의) 성경공부

-원서: <http://uus.pauline.or.kr>

-문의: 2020.1.31마감, 02-944-0819~24, 010-5584-8945

#### 가톨릭교리신학원 신입생모집

-2020학년도 통신으로 배우는 신학과정

-원서접수 마감: 2020.02.07(금)

-포스터 및 리플렛 참조

#### 교무금 계좌이체

-교무금 계좌이체를 원하시는 분은 재무부장(차장)통해 필요한 정보를 받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 1월 구역/반모임

-4구역2반 31일(금) 저녁7시 차호섭 요셉 가정

#### 전례 상식

-주일헌금은 자선행위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무엇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일주일간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다시 내가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 행위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정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성당의 중심은 제대입니다. 또한 중앙통로는 전례때에 주로 사용됩니다. 제단에 드나들거나 제대 앞을 지나가는 이는 모두 제대에 걸은 절을 해야 합니다(주교예절서 72항 참조). 독서자는 독서대에 오르기 전에 미사 전례의 중심인 제대를 향하여 절을 합니다.

#### 전례 성가

	입 당	예 물	성 체	파 견
금 주	421	512	166	31
차 주	62	210	154	34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김주연 세실리아	감영진 라파엘	한준희 라파엘라
차 주	김명은 안젤라	김병철 베네딕도	김경희 스킨라스티카

#### 미사 복사

	시종복사 1	시종복사 2
금 주	김정훈 로베르토 정예찬 미카엘	강윤후 그레고리오 강미정 클라우디아
차 주	고평원 프란치스코 차민서 임마누엘	김하울 루카 김가온 토마스

#### 헌금 봉사자

금 주	김태중 예레미야, 강승호 아오스딩
차 주	감영진 라파엘, 이우영 가브리엘

#### 애찬 봉사자

금 주	김시연, 김명희, 윤지선
차 주	조지연, 박정자, 김경돌, 정연숙, 이경남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수요일: 7:30 PM  
첫 토요일: 10:00 AM (신심미사)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신자교리  
주일 10:00 AM

# 천주교 캔사스대교구 한인성당

## 복자 정약중 아우구스티노 한인성당

Blessed Jeong, YakJong Augustine Korean Catholic Community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www.kckcatholic.org](http://www.kckcatholic.org)

주임신부 박종수 펠릭스  
korean1481@gmail.com

회장 고영방 스테파노  
(913) 227-9040

총무 박태주 로마노  
(610) 212-9539

유아세례: 전례부에 신청

주일학교: 주일오전10시 나자렛관



####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3주일입니다. 이 겨울에 많은 사람이 가난과 추위와 고독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십니다. 하늘 나라의 도래는 구원 약속의 성취를 뜻합니다. 우리가 주님 구원의 작은 도구가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빛을 전하는 노력을 하기로 다짐하며 미사에 참여합시다.

#### 그림 묵상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마태 4,19-20)

부르심은 귀한 선물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속의 바다에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올릴 수 있도록 당신의 제자들을 오늘도 부르십니다.

그림: 김옥순 | 수녀

제 1 독 서 : 이사야, 8,23c -9,3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화 답 송 :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입니다.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라?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라? ◎

○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며, 주님의 아름다움 바라보고, 그분의 성전 우러러보는 것이라네. ◎

○ 저는 산 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어지심을 보리라 믿나이다. 주님께 바라라.

힘내어 마음을 굳게 가져라. 주님께 바라라.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 1,10-13.17

<모두 합심하여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 ◎

복 음 : 마태오 4,12-23

<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으로 가셨다.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

### 생명의 말씀

##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지난 한 해도 많은 분들이 한마음한몸운동본부를 통해서 다양한 사랑과 나눔의 기적에 동참해주셨습니다. 어린이집 원아 50여 명이 고사리손으로 모은 기부금을 명동 1898 광장의 나눔 자리에 직접 찾아와서 전달하였고, 더 많은 사람이 동참할 수 있도록 나눔을 알리기 위해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응원 영상을 만들어 주신 홍보대사님들도 있었습니다. 결혼 25주년을 기념해 기부해 주신 부부, 결혼을 앞두고 기부해 주신 예비부부, 본인의 특강비 수입 전액을 기부해주신 분, 다양한 생애주기별 기념을 통해 기부해 주신 많은 가족분들의 소중한 사랑과 나눔의 손길이 지구촌 가난한 나라의 이웃들과 국내 긴급한 치료비·수술비가 필요한 환우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전달되었습니다.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어서, 물을 기르지 않고 학교에 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지구촌 빈곤한 마을 주민들의 감사 편지는 기부자들과 본부의 활동가들에게도 큰 기쁨과 보람이 됩니다. 나눔은 누군가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을 영육 간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는 어느 기부자 가족들의 고백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이러한 소중한 아름다운 나눔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소중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복음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마태 4:16)

오늘날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은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 주변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전쟁과 폭력, 기아와 빈곤을 넘어 심각한 환경과 생태 위협적인 세상에 살고 있으며, 이제는 더 이상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각한 생명의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인류 공동의 집인 지구를 파괴하는 행위를 “생태적 죄”로 규정하고 이를 가톨릭교회 가르침에 포함할 것을 검토하겠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어둡고 끔찍한 불행의 그 원인은 우리가 생명 경시와 사랑과 나눔의 부재 속에서 살아온 까닭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이러한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를 밝게 비추어 줄 큰 빛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체성사의 정신인 사랑과 나눔의 실천입니다. 가진 것을 나누고, 각자의 재능과 시간도 나누고, 악과 무질서로 기우는 악습을 끊고, 그 희생을 나누는 삶의 변화가 바로 그 큰 빛입니다.

오늘 복음의 그 큰 빛이 온 세상 우리의 어둡고 인색하고 이기적인 마음에 가득 비추기를 희망합니다. 경제적으로나 교육적인 사회적 혜택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 나라 주민들의 삶이, 국내 가난한 환우들의 생명이 더 이상 나 자신과 무관하지 않은 세상이 된다면, 우리 후손들이 물려받을 세상은 아름답고 행복한 주님의 그 큰 구원의 빛이 밝게 비추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김정환 프란치스코 신부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상임이사

### 이 말이 궁금해요

#### 본명(本名, baptismal name)

- 세례 때 받는 이름. 세례명. 영명

“본명이 뭐예요?”

신자들과의 만남 중 흔히 들을 수 있는 질문이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받은 이름, 즉 세례명을 묻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름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름이 사람에게, 특히 사람들은 이름이 그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았고, 집안의 어른이나 학식이 있는 이, 작명소 등을 찾아 이름을 받아 짓곤 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특수한 상황에서 더 이로운 삶을 살 수 있길 바라며 사용하는 이름도 지어 사용했다. 어린 시절에만 쓰는 아명(兒名), 글을 쓸 때 사용하는 필명(筆名), 연예계에서 불리는 이름인 예명(藝名) 등이 그렇다. 사실 본명이란 이런 아명, 필명, 예명이 아닌 ‘본디 이름’을 일컫는 말이다.

신앙인에게도 이름은 중요하다. 세례 때 새 이름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남을 뜻한다. 성경에서도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시몬이 베드로로, 사울이 바오로로 새로운 이름을 받아 하느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다. 이러한 이름의 영적인 중요성은 하느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명(召命)과도 연결됐다. 그래서 신자들은 세례 때 좋아하는 성인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삼으면서 평생 그 성인을 자신의 수호성인으로 공경하면서 그를 본받아 살아가고자 다짐한다.

세례명이 본명으로 불리게 된 연유도 이런 새로 태어나는 세례의 중요성에서 왔다. 신앙선조들은 원래 자신의 본명이었던 이름을 속명(俗名), 즉 세속의 이름이라고 칭하면서 세례명을 자신의 본명으로 삼았다. 새로 태어난 자신의 본디 이름이 바로 세례명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오늘날에는 ‘본디 이름’이라는 뜻의 본명과 혼동을 막기 위해 세례명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권한다. 하지만 신앙인으로서 스스로 자신의 본디 이름, 본명을 무엇이라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이승훈 기자 | 가톨릭신문

### 말씀의 이삭

##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일 년 365일 중에서 내 마음과 영혼, 몸이 완벽하게 평화로운 날이 며칠이나 될까요? 마음은 평화롭지만 몸이 아픈가 하면,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바람 심한 날 풍차마냥 돌아가는 통에 정신을 차리기 어려운 날이 대부분입니다. 나는 언제쯤이나 고요하고 평온한 시간을 온전하게 가질 수 있으려나, 그런 날이 오기는 하는 걸까, 한숨이 나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미사 중에 문득 이 구절이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아! 바로 이거야!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께서 이미 제게 평화를 주셨건만, 제가 그 평화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미 평화는 내 안에 있건만 그런 줄 모르고 평화가 어디 있는지 사방을 헤맨 것입니다. 마치 마테를링크의 희곡 <파랑새>에서 주인공이 파랑새를 찾아 먼 길을 헤매듯이 말입니다. ‘평화’라는 것이 실체가 없고 개념 또한 저마다 다르니 자기가 현재 평화로운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평화를 누릴 수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인 ‘평화’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저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평화의 기도문을 통해 어느 정도 구체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롭기 위해서는 미움, 다툼, 분열이 없어야 하고 의혹과 그릇됨, 절망을 믿음과 진리, 희망으로 바꿔야 하며 어둠과 슬픔을 빛과 기쁨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웃을 위로하고 이해하며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프란치스코 성인조차도 늘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지 않았을까요? 특히 용서와 일치하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남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활동하는 가톨릭커뮤니케이션협회(SIGNIS)는 바티칸 교황청의 공인단체로 TV, 라디오, 영화, 인터넷, 미디어 교육 등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 세계 가톨릭 성직자와 평신도들의 모임입니다. 이 협회의 4년마다 열리는 세계 총회가 2021년 8월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서울 총회의 주제는 “Peace in the Digital World(디지털 세상에서의 평화).” 전 세계 300여 명의 시그니스 회원들이 참가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대에 진정한 평화는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논의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개인으로서, 단체로서 주님이 주신 평화를 구현하고 지켜나가기 위해 늘 고민합니다. 이런 고민들이 나름의 해결방안을 얻어 우리 모두가 참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임주빈 모니카 | KBS 심의위원, 시그니스(가톨릭커뮤니케이션협회) 서울 회장

### 주일학교 소식



#### 지난 주 주일학교 봄학기가 개강했습니다.

- 봄학기는 1/19-5/24 동안 진행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첫 수업에서는 첫고해성사를 앞두고 고해성사 하는 법과 10계명에 대해 배웠습니다.

#### 미사 후 뒷정리에 함께 하는 아름다운 손을 하느님께서 기다리십니다.

- 2월 2일 성당/지하식당 청소: 1구역
- 매 주일미사 후 간단하게 뒷정리 합니다.
- 청소 담당은 편의상 구역을 나뉘셨을 많은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